

성령과 주가 행하시는 역사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본 문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 성령님께서서는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하신다. 고로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 꼭 행해야 된다.
2. 톱니바퀴가 움직이듯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선생도 톱니바퀴같이 움직이며 그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을 하니, 그때마다 ‘표적의 역사,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
3. 성령님은 한쪽에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한쪽에는 브레이크(break)를 잡고 ‘시간 운전’을 하신다.
4. <초>를 다투며 행해야 된다. <초>를 다투며 행하려면, ‘인간으로서 신’이 되어야 한다.

5. 선생이 <초>를 다투며 해야 될 일을 행하니, 성령님께서서는 즉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표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6. 성령님께서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시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표적의 역사’ 다.
7.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했다. 여기서 장차 ‘올 자’ 는 ‘하나님’ 이시다. 그리고 ‘장차 온다’ 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신약’ 때 온다는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성약’ 때 온다는 말씀이다.
8.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했다. 신약 때 <인자(人子)>는 ‘예수님’ 이다. 고로 신약 때는 예수님을 통해 행한 대로 갚아 주는 역사가 진행 됐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인자’ 를 보내셨다. 고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행한 대로 갚아 주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9. <행한 대로 갚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를 행한 자들’ 에게는 기쁨의 말씀이며 희망의 말씀이고, ‘악을 행한 자들’ 에게는 심판의 말씀이며 두려운 말씀이다.
10.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시다.

11.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대해 주시는 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며 공의의 법’이다.
12. <선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축복’을 주시고, <악한 것>을 행하면, 역시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13. 지난날 섭리사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을 행해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표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그 증표가 무엇이나. 첫째, 하나님의 자연성전이며 둘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각 나라, 각 지역에 주신 성전이다.
14. <자기 행위>가 ‘자기의 열매’다.
15. <시대>가 선하면 선한 대로 갚아 주시고, <시대>가 악하면 악한 대로 갚아 주신다.
16. 하나님은 그때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셨다. 이를 알고 따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주에 대해서도, 이 시대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된다.
17. <악한 시대>에는 ‘악한 왕’이 세워지고, <선한 시대>는 ‘선한 왕’이 세워진다. 고로 <악한 시대>는 ‘악의 역사’가 진행되고, <선한 시대>는 ‘선의 역사’가 진행된다. <종교>도 그

러하고, <경제>도 그러하고, <정치>도 그러하다.

18. <악한 왕, 사울>은 그 행위 대로 본인도 심판을 받고, 그와 같이 악한 시대도 전쟁으로 심판을 받고 끝났다. 그러나 <선한 왕, 다윗>은 그 행위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19.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악한 자들을 두고 그 행위 대로 심판하셨다. 이 시대를 보고 깨달아라.
20. <시대 보낸 자>가 시대 십자가를 지고 나오니, 그때부터는 ‘평화의 세계, 의인의 세계’로 뒤바뀌었다. 지금은 ‘평화의 세계’가 진행 중이다.
21. <선한 자들>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며 뛰고 달려야 된다. 왜? <좋은 때>가 왔기 때문이다.
22. <이 시대>는 ‘신랑’과 ‘신부’가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고 계획하며, 같이 뛰고 달리며 행하는 때다.
23.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산다면, 누구든지 내가 직접 통솔하고 주관하며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다.